

19. 베일 속에 가린 법화사(法華寺)³⁶⁾

◎ 원(元)나라 망명궁전(亡命宮殿)이 될 뻔 하기도

◎ 일각에선 장보고(張保臯)의 창건설(創建說) 등장

수정사와 더불어 도내에서 가장 큰 사찰(寺刹)로 알려진 법화사(法華寺)는 지금 복원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1987년에 1차 사업으로 기공을 본 대웅전(大雄殿)은 이미 건축 공사가 끝나 마무리 손질을 하고 있다.

법화사는 일찍부터 원나라의 창건설과 함께 원(元)의 피난 궁전(宮殿)을 세우려던 곳이라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져 왔다. 여기에 지난 1980년 법화사복원추진위원회가 발족되고 명지대(明智大) 박물관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과거에 없던 이야기까지 등장하여 도대체 법화사가 언제 절이냐 하는데 혼선을 빚고 있다.

36) 『한라일보』 제108호 (1989. 08. 26).



| 복원(復元)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법화사(法華寺) 대웅전(大雄殿) | 앞쪽으로 옛 절터에서 발견된 주춧돌 등을 볼 수 있다.

충렬왕(忠烈王) 행차설도

서귀포시(西歸浦市)나 추진위가 내놓은 보고서 등을 보면 법화사는 “통일신라(統一新羅) 때 해상 무역왕 장보고(張保皋)에 의하여 창건되었다.”고 아예 못 박은 것이 있는가 하면 다음과 같이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통일신라 이후부터 제주도는 신라의 영토로 자동 편입되고 따라서 고도의 신라 불교문화가 더욱 꽃피었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략) 장보고가 해상을 지배한 9세기 중엽에는 일본(日本)과 중국 우리나라의 무역활동의 교류지로서의 구실도 상당히 했을 것이다. (중략) 이 당시

장보고가 산동에 법화원(法華院)을 창건했듯이 제주도에도 법화사를 창건했을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가 신라에 영토로 자동 편입되고, 일본과 중국, 우리나라 무역활동의 교류지가 되었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또 그러니까 법화사도 지어졌다는 논리도 무책임한 추리가 아닐 수 없다.

『완도군지(莞島郡誌)』(1977년)가 “한라산(漢拏山) 서록(西麓)에 장보고가 법화사를 창건한다.”는 말도 나오서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장보고가 건립한 법화사지(法華寺址)는 이미 청해진(靑海鎭)이 있던 완도에서 발견되어 이 방면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충렬왕이 1285년 공주와 더불어 친히 법화사에 행차했다.”는 기록도 의문이다. 필자 자신도 “충렬왕이 몽고의 세력권에 들어 있는 동녕부(東寧府)와 탐라(耽羅)를 찾아 갔다.”는 기록을 보았고 또 실제 충렬왕이 공주와 더불어 절이나 여러 지방을 자주 행차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왕의 행차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고려사절요』를 보면 1285년에 제주도를 찾았다는 기록은 없다.

법화사는 앞으로 새로운 전거(典據)가 적시되지 않는 이상 지금으로서는 원나라 때의 사찰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원의 양공(良工)이 주조한 미타삼존불상(彌陀三尊佛像)이 법화사에 있었던 사실은 바로 그 전거라고 할 것이다.

뒤에 이 삼존동불상(三尊銅佛像) 때문에도 말이 있었다. 『태종실록(太宗實錄)』 등을 보면 명제(明帝)가 이 불상이 있는 사실을 알고 황엄(黃嚴)



법화사 대웅전(서귀포시 하원동) | 1980년 법화사복원추진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1990년 복원된 대웅전 정면.

등 사신을 조선에 보내어 이 불상을 구해오도록 하였다. 이들 사신 일행은 직접 제주도까지 내려와 가져가려고 하였다.

이때 조선 조정에서는 명나라 사신들이 제주도까지 가려는 것은 혹시 딴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였다. 원나라도 근 1백년이나 제주도를 강점해 있었던 사실이 있었으므로 더욱 당황하였던 것이다. 이에 조정에서도 부라부라 선차(宣差) 김도생(金道生)과 사직(司直) 박모(朴謨)를 제주에 급파하고 법화사의 불상을 나주(羅州)까지 운송하여 그들 사신에게 인계하였던 것이다.

원(元)이 주조한 동불상(銅佛像)

명제가 그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사신들을 파견하여 운송해 갈 정도라면 이때 법화사에 있었던 불상은 대단한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

된다.

그보다 이태 뒤인 1408년(태종 8)의 『태종실록』을 보면 제주에 노비를 둔 비보사찰(裨補寺刹)이 둘이 있으며 그 가운데 법화사에는 2백 80인, 수정사에는 1백 30인의 노비를 두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다른 사찰의 예에 따라 각각 30인만 주고 나머지는 전농시(典農寺)로 돌리도록 의정부가 상주하고 있다. 2백 80명이나 노비를 두었다면 이때 법화사의 규모가 얼마나 컸겠느냐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다. 1601년(선조 34)의 『남사록(南槎錄)』을 보면 원나라 때의 유적으로는 오직 수정사만이 홀로 우뚝 남아 있고 법화사는 이미 폐사(廢寺)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또 이때부터 50년쯤 뒤인 1653년(효종 4)의 『탐라지(耽羅志)』에도 절은 이미 폐사되었다고 전제하고 “절터와 나한전(羅漢殿) 터의 주춧돌과 대석 등을 보면 모두 크고 정밀하게 다듬은 석재를 사용하였는데 전성시에는 굉장하였던 것을 가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초가 암자 수 칸만 남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1843년(헌종 9)의 『탐라지』에는 그 초가 암자마저 없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에 다시 절이 들어선 것은 근대에 들어와서 1926년 관음사(觀音寺) 창건주인 안봉려관(安蓬廬³⁷⁾觀) 스님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그것은 초라한 암자에 지나지 않았다.

서귀포시(西歸浦市) 하원동(河源洞) 1071번지. 이 일대가 최근의 발굴 조사로 수많은 유물과 함께 엄청난 규모의 절터였던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일찍이 이곳을 답사했던 사학가 김태능(金泰能)씨는 바로 이곳이 원나라 순제(順帝)가 피난 궁전을 세우려던 곳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법화사지 주춧돌

했다.

『고려사』를 보면 1367년(공민왕 16) 원나라 어의주사(御衣酒使) 고대비(高大悲)가 제주에서 올라와 왕을 알현하고 제주를 고려에 환속시키는 순제의 명을 전달하는 한편 순제가 제주도에 피난하고자 하여 어부(御府)의 금과 비단을 실어다 둔 사실을 아뢰고 있다.

이때부터 피난 궁전을 짓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 없어 원나
 37) 신문에는 ‘로(蘆)’로 되어 있다. ‘려(廬)’로 바로 잡음.



법화사지

라가 명나라에게 멸망당하는 바람에 이 역사도 중단되고만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